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 케이닉(Harold Koenig)의 주장과 최자실 목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채병관* 황나리**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종교가 힐링에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조명한다. 종교적 힐링이 개인적 부분에서만 아니라 집단의 부분에서 어떠한 실질적 변화와 회복을 제공하는지 살펴본다. 즉, 종교적 힐링이 개인의 치유와 공동체의 “하나 됨”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의학박사 케이닉(Harold Koenig)의 주장에 근거하여 개인적 치유와 종교의 역할을 살펴본다. 그리고 종교적 힐링에 매우 적극적인 최자실 목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 영역에서 목격되는 종교적 힐링의 모습과 효과를 조명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개인적 힐링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더 나아가 집단 영역에서의 힐링과 이를 통한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차원인 몸과 집단의 차원인 사회 속에서 종교와 힐링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종교와 힐링, 해럴드 케이닉, 최자실, 의학과 종교

* 주저자: 채병관(E-mail : kwanchae@gmail.com)
학위취득대학: Temple 대학교
현직: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초빙교수

** 교신저자: 황나리(E-mail : freesoul0425@gmail.com)
현직: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석박사 과정 수료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선정된 서강대학교 [종교와 힐링] GRN (Global Research Network) 3년 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사업임(No. 2017S1A2A2040811).

논문접수일: 2018년 6월 25일, 논문수정일: 2018년 7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8년 8월 1일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 케이닉의 주장과 최자실 목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5

Religious Healing in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Spheres: Based on Harold Koenig's Argument and the Experience of Reverend Choi Jasil

Chae, Byung Kwan and Hwang, Nari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how religion can relate to healing.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religious healing provides any substantive change and recovery in the collective sphere as well as in the individual sphere. This means that religious healing has a positive effect on individual healing and provides "solidarity" of the community. To this end, based primarily on Harold Koenig's idea and argument,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healing and religion. Likewise, in order to highlight the collective areas of religious healing, it focuses on the case of Rev. Choi, Jasil of the Pentecostal Church, who was very active in religious healing. In so doing, one can see that religion still influences personal healing in modern society, and it serves to strengthen social solidarity through group healing in the collective area. In other words, this article will help readers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healing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

[Keywords] *religion and healing, Harold Koenig, Choi Jasil, medicine and religion*

I. 들어가는 말

힐링(healing)은 종교가 갖는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종교는 인류와 함께 지속하여 오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힐링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원시시대에는 천둥과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에 대하여 불안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담당했다. 공포를 주는 자연대상을 ‘신’처럼 섬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스리는 더 큰 존재를 신으로 섬기며 사람들에게 힐링을 제공했다고 본다. 세상 속에서 접하는 여러 자연 현상 중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현상에 대하여 종교는 ‘힐링’ 기능을 제공해 왔다. 아울러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등에 대하여서도 종교는 다양한 형태의 ‘힐링’을 제공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들어서 적지 않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종교적 힐링이 갖는 심리적,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종교가 심리적 콤플렉스 등으로 생성된 것이기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종교에 대한 의존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에게 종교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위로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the opium of the people)이라고 부르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주는 현실 안주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는 공산 사회가 도래하면서 종교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종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감지되었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 발전에 대해 기대감이 커 갈수록 종교의 역할과 위치는 감소하거나 주변으로 밀려날 것으로 내다봤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아이디어를 근거로 하여 버거(Peter Berger)가 주장한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는 밀려나 단지 사적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현대 사회의 ‘합리화’는 종교의 영역을 소위 ‘이성’의 자리에 내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에도 종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개인의 차원으로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 카사노바(Jóse Casanova)가 주장한 것처럼 종교가 단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종교가 “공적 종교”(public religions)로서 탈세속화 현상을 드러내면서 종교적 아이디어와 주장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발휘되고 수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21세기를 앞에 둔 시점에서 종교의 “사사화”를 앞장서 주장했던 베버는 “오늘날의 세계는 엄청나게 성스럽고 여러 현대의 분석가들의 예측한 세속 세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전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Berger 1999, 9). 이처럼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종교와 힐링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개인적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종교가 힐링에 끼치는 영향을 의학적 주장을 근거로 하여 살핀다. 즉, 종교와 힐링의 관계를 의학의 현장과 종교기관의 현장에서 살피고자 한다.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종교와 힐링이라는 주제는 사뭇 증명될 수 없는 주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 케이닉의 주장과 최자실 목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7

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의학이라는 과학적 수단으로 종교와 개인적 힐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여겨진다. 동시에 파편화되어 가면서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삭막한 현대 사회에 집단적 힐링은 사회의 활력소가 되며 집단적 연대감(collective solidarity)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종교와 개인의 힐링 관계를 조명하고자 의학박사 케이닉(Harold Koenig)¹⁾의 책 『의학, 종교, 그리고 건강』(Medicine, Religion, and Health)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의지하여 글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집단적 힐링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오순절 교단의 대표적 종교기관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최자실 목사의 힐링 사례를 근거로 하여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의학적 입장을 모두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링(leading)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닉을 자료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힐링과 종교의 연관성을 조명하는 것은 종교와 힐링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여 현대인들의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다양한 종교 기관 중에 힐링에 그 어느 집단보다 적극적인 오순절과 교단의 대표적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사례를 통해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에 다양하고 폭넓게 존재하는 힐링에 대하여 종교적 입장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종교영역에서의 힐링의 구체적 모습과 긍정적 역할은 현대인들에게 종교적 힐링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넓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 힐링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살펴본 후, 개인적, 집단적 힐링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II. 종교와 힐링: 용어와 정의 이해

종교에서의 힐링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 종교적 힐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돕고,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제공한다. 집단 영역에서도 다양한 치유의 경험을 통해, 집단적으로 결속감이 증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종교적 힐링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회복, 단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힐링이라는 용어는 더욱 보편적으로 넓게 해석,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펀그렌(Gary B. Ferngren)은 힐링을 자연적 힐링, 종교적 힐링, 마술적(magical) 수단에 의한 힐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Ferngren 2014, 9-10). 자연적 힐링은 의사에 의한 힐링을 포함하여 민간 요법, 약초 치료, 전통 치료 등에 의한 힐링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적 또는 신적인 힐링은 일반적

1) Koenig 라는 이름이 원래 독일어에서 유래한 성이기에 독일어로는 ‘코니히’에 가깝겠지만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없는 발음이다. 따라서 그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불리는 발음에 가깝게 그의 이름을 표기하기로 하여, 이 글에서는 ‘케이닉’으로 부르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한국어로 ‘코에닉’으로도 소개된 것 같은데 그와 동일인임을 밝혀 둔다. 저자 이름에 대한 통일된 표기가 될 경우 그 이름을 따르도록 하겠다.

인 자연의 범주를 넘어서는 신적의 힘의 간섭을 통하여 고쳐지는 것을 말하며, 마술적 수단에 의한 힐링은 부적, 주문, 주술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범주가 현실에서는 서로 겹치고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Ferngren 2014, 11).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도 힐링을 특정 의미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건강과 나옴, 그리고 회복의 의미로 힐링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의학적 차원에서의 힐링을 다루는바, 힐링이란 건강을 회복하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건강(health)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질병(disease)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집단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는 더욱 폭넓게 사용된다. 즉 집단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는 보편적 의미의 건강(wellness)과 복지과 행복의 의미를 담은 웰빙(well-being)의 개념으로도 건강이란 단어가 쓰인다(Ferngren 2014, 7).

이에, 이 글에서 다루는 힐링도 건강을 말하는 것이되, 몸의 질병이 낫는 차원과 더불어 행복과 복지라는 웰빙의 의미로 폭넓게 쓰일 것이다. 즉, 비단 신체적인 병을 고치거나 심리적 아픔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아픔과 고민을 해결하여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힐링이라고 본다.

III. 개인 영역에서의 종교와 힐링: 의학적 조명

질병에 대한 힐링과 종교는 깊은 연관을 가져왔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중반에까지 많은 질병을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을 통하여 다뤄졌다(Koenig 2008, 33). 종교 기관이 병원 등의 운영을 통하여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주도해 비록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질병을 고치려는 모습을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간호는 종교적인 지침에 따라 이뤄졌고 미국의 경우 1950년대까지 환자 중 거의 25%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Koenig 2008, 33). “현대 건강관리”(modern health care)라는 개념의 뿌리가 종교기관에 있다는 말이다(Koenig 2008, 34).

그렇다면 21세기의 종교와 의학과 힐링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에 대하여 케이닉의 책 『의학, 종교, 그리고 건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의학박사인 그는 현재 정신과 및 행동과학 교수이자 듀크(Duke) 대학교의 ‘신학, 영성 및 건강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Theology, Spirituality, and Health) 책임자로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종교/영성이 환자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 경험과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 종교와 건강 간의 연관성

개인적으로 종교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러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러한 고백은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단지 심리적인 효과나 개인적인 신앙고백 차원을 넘어서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일까? 케이닉은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조사 결과를 통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 케이닉의 주장과 최자실 목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9

고 있다. 병원에 입원한 3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그들 중 42%에게 종교적 믿음은 질병에 대응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연구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Koenig 1998; Koenig 2008, 55-56). 아울러 건강한 사회관계가 물리적인 건강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고 앞서 말했는데 특별히 노인들의 경우 종교적 헌신과 참여가 그들의 양적, 질적 사회관계를 갖게 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케이닉은 컬터(Stephen Culter)의 연구발표를 근거로 노인들의 경우 종교조직의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그 어떤 사회조직 참여보다 더 보편적인데 예를 들어 교회 활동만으로도 그 어떤 활동보다 더 큰 인생의 만족감을 제공해 준다고 밝힌다(Koenig 2008, 55-57; Culter 1976).

케이닉은 행동 교정과 종교 간에도 긍정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이전에 종교와 범죄비행과의 관계에 대해 행해진 36개의 연구 중 약 80%의 연구에서 더 종교적일수록 비행행위나 범죄행위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Koenig 2008, 59). 일례로 스타크(Rodney Stark)는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비행과 범죄 행동에 관여할 비율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다(Stark 1996). 2000년 이후의 연구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존슨(Byron R. Johnson)이 보스턴, 시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16세부터 24세의 흑인 남성 2,300명에 대해 행한 조사에 의하면, 종교적 헌신은 (비) 마약 관련 범죄와 반비례한다고 한다(Johnson and Siegel [2002]2008, 8-9; Koenig 2008, 59).

아울러, 종교성이 폭음(binge drink)과 같은 약물 남용 및 중독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2001년도 컬럼비아(Columbia) 대학교의 중독 및 약물 남용에 대한 국가 센터(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종교적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경우 종교적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50% 더 술과 담배를 더 즐기고, 3배 더 폭음을 즐기고, 6배 더 마리화나를 피우며,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매주 또는 그 이상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사람에 비해 거의 7배 더 음주한다고 주장한다(Koenig 2008, 60; Koenig 2009, 289). 음주 외에도, 이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종교적 신앙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종교와 성적 태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2000년도 이전에 발표된 38개의 연구 발표문 중 97%에 해당하는 37개 연구에서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혼외 성관계에 대하여 더 낮은 비율을 보이거나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oenig, McCullough, and Larson 2001, 571-572).

이처럼 케이닉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종교가 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학적 조사결과에 초점을 맞춰 종교와 개인의 건강 관계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2. 의학과 종교 그리고 건강

케이닉은 의학적으로 영적인 체험 또한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영적인 체험이 백혈구와 같은 림프구의 수를 증가시켜서 건강 증진을 가져온다고 한다(Koenig 2008, 86). 1992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E.P.E.S.E. (The Established

Populations for Epidemiologic Studies in the Elderly) 기관에서, 65세 이상의 1,718명의 참가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IL-6의 양과 면역 조절제 및 염증 인자의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세포 면역에 영향을 끼치는 IL-6라는 혈액 단백질이 적을수록 건강한 것으로, IL-6의 양이 5pg/ml을 넘을 경우 “높음”에 해당하는데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사람의 경우 종교기관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음”에 해당하는 수치가 49% 적었다고 한다(Koenig et al. 1997; Koenig 2008, 89).

아울러, 종교는 면역체계의 세포 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면역체계에는 외부 병원균에 대해 직접 공격하거나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들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즉,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t-helper 세포(CD4)와 억제하는 t-suppressor 세포 간의 건강한 균형이 중요하다. 만약 CD4가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면 자가 면역 장애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알레르기(allergy)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억제 세포의 활동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면역체계가 작동을 못 하게 된다(Koenig 2008, 85). 특별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환자에게 이 CD4 세포의 수는 매우 중요하다. 이 수치가 세제곱 밀리미터(mm³) 당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환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AIDS) 환자로 확진된다는 것이다(Koenig 2008, 85). 우즈(Teresa Woods)와 그의 동료들이 106명의 HIV 양성 환자인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실천과 면역기능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Woods et al. 1999),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실천(기도와 예배 참석, 영적인 대화와 종교 경전 및 신앙 서적 읽기 등)은 CD4 세포 숫자 증가와 매우 관련이 깊었다. 한편 단순한 종교적인 대처, 예를 들어 신의 도움을 청하고 신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우울증 증세를 줄이고 염려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CD4 세포 숫자의 변화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종교는 심장혈관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의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종교를 갖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의 경우 그리고 명상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낮은 혈압을 갖고 고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Koenig 2008, 112). 또한, 외딴 수도원에 거하는 144명의 수녀와 그 근처 마을에 사는 138명의 일반 여성을 20년간 추적 비교한 실험이 있다(Timio et al. 1988). 연구 시작 초기에 수녀 그룹과 통제 그룹 간의 평균 혈압차이는 똑같았으나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음에 따라 통제집단 즉 일반 여성들에게서만 혈압 상승이 목격되었다. 수축기 혈압의 경우 회귀선(베타 계수)의 평균 기울기가 수녀그룹은 0.089, 일반 여성 그룹은 2.171 ($p < 0.0001$)이었고, 이완기 혈압의 경우 수녀 그룹은 0.054, 일반 여성의 경우 0.742 ($p < 0.0001$)였다(Timio et al. 1988, 459-460). 나이, 몸무게, 체질, 콜레스테롤 수치, 나트륨 배출량에서는 통제되거나 상호간의 차이가 없었다. 교육 정도에 따른 혈압 변화도 변별력이 없었고, 출산 경험의 경우, 출산하지 않은 일반 여성과 수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일반 여성의 혈압 상승이 현저히 높았다(Timio et al. 1988, 460). 티미오(Mario Timio) 등 이 연구에 참석한 학자들은 일반 사회와 다른, 수도원의 종교적 에너지가 이러한 차이를 빚은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즉, 경쟁이나 갈등, 권력과 돈을 위한 경쟁, 증오의 감정과 같은 세상의 부정적 에너지 대신, 침묵, 명상, 고립 등의 평온한 에너지가 이러한 차이를 빚을 것이라고 주장한다(Timio et al, 1988, 461).

이에 대하여 케이닉(Koenig 2008, 99)은 종교적 믿음과 헌신이 수녀들의 혈압 유지에 공헌할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 케이닉의 주장과 최자실 목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11

것이라고 덧붙인다. 즉, 상황과 경우는 다르지만, 더 종교적인 주체들에게 심혈관 질환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고 케이닉은 주장한다(Koenig 2008, 112).

아울러, 케이닉(Koenig 2008, 104-105)은 종교적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초월 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 (TM))이 혈압 강하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다. 영적인 개입(intervention)은 다른 운동이나 수련법보다 혈압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폴-라브라도(Maura Paul-Labrador et al. 2006)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도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중의 하나인데 그들은 무작위로 103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TM이나 스트레스 교육 통제 그룹(Stress Education Control Group)에 16주 동안 참여하게 하였다. 올바른 실험을 위해 이전에 TM이나 스트레스 조절 훈련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였다. TM은 9분간의 서론 강의 2회, 간략한 개인 인터뷰, 9분간의 개인 안내, 90분간의 그룹 모임 3회, 90분간의 유지 보수(maintenance) 그룹 모임 2회(첫 주만 2회 모이고 이후 3주 동안은 1회 모임)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매일 집에서 명상 훈련 2회씩 할 것을 요구받았다. 4주 후 종교적 명상을 가졌던 그룹과 일반 스트레스 조절 훈련을 받은 그룹과 비교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 3.4 mmHg의 감소를 경험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2.8mmHg만큼 상승했다. 심박수 변동성도 클수록 더 좋는데 전자의 경우에서 측정되었다.

물론 모든 종교의식이 혈압 강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 참여와 헌신은 일반적으로 혈압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겠다. 일례로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 행해지는 반복적 금식과 식사와 같은 종교의식은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낫는다고 한다(Koenig 2008, 108). 하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적 헌신과 참여는 (고)혈압 강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케이닉의 주장이다(Koenig 2008, 111).

이 장에서는 케이닉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의학적으로 측정되고 수집될 수 있는 종교와 힐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종교가 개인의 힐링에 끼치는 영향력을 의학적 입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영역에서 종교는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힐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여전히 “동행”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힐링을 넘어 사회적, 집단적 힐링에 대하여서도 종교는 상관관계를 보일까? 현대 사회 속에서도 집단 영역, 공공 영역에서 힐링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는 집단 영역에서의 힐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하나 됨”의 종교적 경험과 힐링

앞서 특별히 의학과와의 연관성 속에서 종교와 힐링 담론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힐링의 담론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공의 영역으로 담론의 확대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개인적 힐링과 공공적 힐링의 연결점을 “하나 됨”에서 찾아보고 이것이 종교

적 경험을 통해 드러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예로 한국과 해외에서 수많은 집회를 인도했던 순복음교회의 최자실 목사(1915~1989)를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의학적으로 개인 신체에 영향을 미친 종교적 경험들에서 집단으로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하나 됨의 경험

종교적 경험은 인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경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보고 들은 주변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도저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일들이 종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일들을 쉽게 목도하곤 한다(김재영 2013, 135). 오랜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무수한 종교적 경험담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경험들은 그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가 이야기한 종교적 경험의 특징을 따르고자 한다. 즉 궁극적이고 성스러운 실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종교적 경험 이후 이전의 상태와 완전히 다른 삶의 변화를 갖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띠는 종교적 경험(김재영 1994, 154)을 구체적 예시로 삼으려 한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들 중 성경공부와 부흥회,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로 상징되는 한국교회의 현대적 특징이 “줄곧”100년간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배요한 2007, 80)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체험이다.

배요한은 자신의 글을 통해 한국인에게 있어 하늘이란 모두가 하나인 구별 없는 참된 곳이며, 그곳은 너와 내가 온전히 한 가족같이 사랑하는 관계임을 표현한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아주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고 매일 교회로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공동체 속에서 “하나” (주님 안에 하나)-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우리네 정서와 잘 부합하는 내용(배요한 2007, 86)이라는 것이다. 이때 공동체란 하나의 생태체계 혹은 사회체계로, 지역공동체는 공동체 의식, 내적 동질성, 자족성, 소규모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Redfield 1955; 한상복,1980).

이러한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백이 되면 공공성을 띠게 된다. 이를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공개적인 고백을 통한 하나 됨

공개적인 고백은 그 장소의 사람들을 동시에 “하나 되는” 종교적 경험을 갖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는 1900년대의 대부흥 운동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1907년 대부흥 운동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원산에서 개최된 여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모임(1903년 8월)에서 원산 교인들은 선교사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로 “공개적인 죄의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 케이닉의 주장과 최자실 목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13

고백과 회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배요한 2007, 87). 이때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살펴보면 하디(R. A. Hardie, 1865-1949) 선교사는 연합 기도회 후 맞은 첫째 주 주일에 배 때(8월 30일) 원산 교인들 앞에 섰으며 그의 증언은 아래와 같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은, 자신이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던 한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실패하였다는 것과 그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괴롭고 창피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여 내시려고 이 일을 선하게 여기시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Hardie, 1904, 23재인용)

그가 대중에게 고백한 대로 선교사가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괴롭고 굴욕적인”(painful and humiliating)일이었다. 그러나 하디는 강력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고집불통이었던 것과 교만했던 것,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자,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한국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선교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속였던 것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후 3주간 동안 토착 교인들이 참여하는 기도회와 부흥회가 원산에서 열렸는데 하디가 인도한 집회 때마다 토착 교인들이 다투어 자기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덕주 2007, 42). 위의 사례와 같이 대중 앞에서의 고백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 됨”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여기에 개인을 넘어 공공으로 확대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부흥 운동 기간을 통해 교인들이 주로 회개한 죄들은 미움과 시기, 불신, 증오, 질투, 원한, 미움, 분노 등과 같은 ‘정신적인’ 것들을 포함한 절도와 횡령, 노름, 사기, 방화 등 ‘물질적인’ 것, 간음과 축첩, 불효, 살인 등 ‘윤리적인’ 것들이었다. 대부분이 훼손되고 왜곡된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죄였다. 그러다 회개를 통해 교인과 교인 사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 회개한 교인들은 갈등 관계에 있던 교인들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였다(이덕주 2007, 53).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회복해야 할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죄를 통회 자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늘 회복의 방법이였으며 한국의 종교심성과 연관해 볼 때 기독교가 가진 혁명적이고 엄청난 위력이었다(배요한 2007, 89). 한 사람의 고백으로부터 개인의 영역에서 신체의 힐링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힐링은 위와 같은 회복과 쇄신의 힐링이다.

최자실 목사의 자서전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적 고백을 통해 집단이 쇄신되는 힐링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인간적인 말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흘 동안 시시비비를 가리며 팽팽하게 맞섰으나 사태는 자꾸만 벼랑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허스톤 선교사가 일어나더니 비장한 어조로, ‘한국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아무 죄도 없고 이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멘트 바닥에 째 엎드려 회개의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스텡츠 목사 부부와 캐참 목사 부부도 함께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특히 캐참 목사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6개월간 애를 태우며 눈물로 기도해오고 있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총회장 분위기는 갑자기 숙연해졌고 일단 싸움을 그치고 그날은 산회되었다...그리하여 팽팽하게 맞서있던 다툼 동안의 총회는 몇 사람을 그만 두게 하고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무사히 끝났다”(최자실 1978, 351).

그녀의 자서전에는 이밖에도 해외 선교 집회에서 집단적인 힐링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을 기술하고 있다. 일본, 대만, 미국,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집회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힐링을 넘어 집단적인 힐링을 증언하고 있다. 그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최자실 목사의 첫 선교여행이었던 1964년 일본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리둥절하며 신학교 예배실에 들어서니까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도 있었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껄껄 웃으면서, ‘최전도사님 은혜 받으신 간증하시라는 겁니다.’ 하며 오히려 재촉이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옛날 배운 일본어를 기억해가면서 떠엄떠엄 한 10여분 동안 내가 자살하려 했던 일,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했던 일, 그리고 지금은 조목사와 함께 3천명 교인들을 모시고 있다고 간증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왔다(최자실 1978, 377).

1966년 1월 대만순회전도 여행에서는 개인적 힐링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

첫 시간부터 성령의 은혜가 비같이 내렸다. 온 교우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죄를 통회자복하면서 ‘한국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대만에도 임하게 하소서’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하여 성회는 연일연야 기도에 불이 붙었고 서른여섯 명이나 성령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믿는 자에게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신 육신의 병고침이 많은 병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최자실 1978, 392).

1970년 일본 순회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집단적인 종교적 체험을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더욱 생동감이 넘친다.

예배 분위기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때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정상까지 엄숙하게 뒤쫓는 양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흐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용서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양 몸부림을 치는 중년 신사들...더욱이 다리 한쪽을 관절염으로 사용하지 못해 벽에 기대어 반 누고 있는 앙상한 얼굴...그는 처음부터 무엇을 노리는 것처럼 탄전을 부리고 있더니 갑자기 영영 울기 시작했다. 각양으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서의 종교적 힐링: 케이닉의 주장과 최자실 목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15

로 변해가는 역사 속에...처음에는 목이 터져라 부르더니 차차 통회의 폭발. 감사와 희열에 묻히어 끝까지 이어지지를 못했다. 정말 바람 없는 물결이 바닷가에서 출렁이는 것 같이 은혜와 평화로움이 넘치는 것 같았다(최자실 1976, 45).

이러한 개인의 힐링 경험은 그 경험을 함께 지켜본 집단의 경험이 된다. “금식기도(음식의 고통),” “철야기도(시간의 고통),” 그리고 삶의 자리를 떠나 “기도원(공간의 고통)”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배요한 2007, 89)를 바탕으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힐링의 경험이 넘어가게 되는 계기는 이와 같이 수양 같은 기도 중의 눈물과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와 같은 종교적 경험에서 나오는 힐링에서 시작해서 함께 한 사람들의 동질감, “하나 됨”의 경험을 통해 힐링의 경험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종교적 경험의 의미가 종교학적 인간 이해의 맥락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다(김재영, 2013).

즉, “하나 됨”이라는 종교적 경험을 통한 힐링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회복, 집단적 힐링이 서로 역동적 관계 속에 놓인 것이란 논의의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

V. 나가는 말

이 글은 건강 회복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에 대하여 종교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조명하였다.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종교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를 제공하는지 케이닉의 주장을 근거로 밝히고자 하였다. 의학적으로 종교는 힐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 힐링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한 개인의 힐링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힐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조명하였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에게 의학적 입장에서의 힐링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면, 종교는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아픔과 치유에 종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집단적 연대감과 공동체성을 잃어간다고 할 때, “하나 됨”의 경험을 제공하는 종교의 역할 또한 현대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힐링이라는 차원에서 종교는 개인의 몸과 집단이라는 사회 치유에 유의미한 작용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힐링이라는 인간의 관심과 요구에 대하여 종교는 여전히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집단의 힐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개인의 힐링과 집단의 힐링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종교가 개인의 사적인 힐링 영역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집단의 영역에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은 특정 학자의 주장과 사례에 집중하여 종교와 힐링을 다루고 있다는 비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더욱 다양한 사례를 담은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다룬 사례는 종교와 힐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종교는 여전히 대답을 요청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와 힐링”이라는 주제는 인류가 지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도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재영. 1994. “「종교경험의 다양성」 속에 나타나 있는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이론.” 『범한철학』 9: 143-180.
- 김재영. 2013. “신종교 연구방향에 대한 종교학적 성찰.” 『한국종교』 36: 133-186.
- 배요한. 2007.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 비추어 본 대부흥운동: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51(1): 80-93.
- 최자실. 1976. 『세계종교여행기』. 서울: 영산출판사.
- _____. 1978.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서울: 영산출판사.
- 한상복. 1980.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3집: 한국현대사회의 문화전통』.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Non-Korean References

- Berger, Peter. 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A Global Overview." In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edited by Peter Berger. Washington, DC: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Culter, Stephen J. 1976. "Membership in Different Types of Voluntary Associ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Gerontologist* 16(4): 335-339.
- Ferngren, Gary B. 2014. *Medicine and Religion: A Historical Introduct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ohnson, Byron R., and Marc V. Siegel. [2002]2008. "The Great Escape: How Religion Alters the Delinquent Behavior of High-Risk Adolescents." *ISR Research Report, Institute for Studies of Religion*. Waco, TX: Baylor University.
http://www.baylorisr.org/wp-content/uploads/ISR_Great_Escape.pdf
- Koenig, Harold G. 1998.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of Hospitalized Medically Ill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3: 213-224.
- _____. 2008. *Medicine, Religion, and Health: Where Science and Spirituality Meet*. West Conshohocken, PA: Templeton Press.
- _____. 2009. "Research on Religio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A Review."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4(5): 283-291.
- Koenig, Harold G., Michael E. McCullough, and David B. Larson. 2001. *Handbook of Religion and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ul-Labrador, Maura, Donna Polk, James H. Dwyer, et al. 2006. "Effects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ranscendental Meditation on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Subject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1): 1218-1224.
- Stark, Rodney. "Religion as Context: Hellfire and Delinquency One More Time." *Sociology of Religion* 57(2): 163-173.
- Timio, Mario, Paolo Verdecchia, Sandro Venanzi, et al. 1988. "Age and Blood Pressure Changes: A 20-year Follow-up Study in Nuns in a Secluded Order." *Hypertension* 12(4): 457-461.
- Woods, Teresa. E., Michael Antoni, Gile Ironson, and David Kling. 1999. "Religiosity is Associated with Affective and Immune Status in Symptomatic HIV-infected Gay 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6(2): 165-176.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Kim, Jae Young. 1994. "The Religious Theory of William James in *The Variety of Religious Experience*." *Beomhan Philosophy* 9: 143-180.
- _____. 2013. "Religious Reflection on the Direction of New Religion Studies." *Korean Religion* 36: 133-186.
- Bae, Yohan. 2007. "The Great Revival Movement in the Light of the Religious Implications of Koreans: Focusing on Bible Study and Prayer." *Christian Ideology* 51(1): 80-93.
- Choi, Jasil. 1976. *A Trip to World Religions*. Seoul: Youngsan Publishing Company.
- _____. 1978. "I was a hallelujah." Seoul: Youngsan Publishing Company.
- Han Sang Bok. 1980.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Korean Community." In *Korean Society and Culture*. Vol. 3, edited b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Mind and Culture. Seongnam: Korea Institute of Mental Culture.